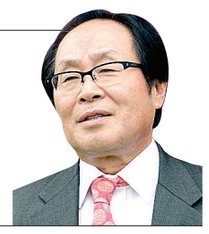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사람으로 태어남은 쉽지 않은 인연
성찰하고 내생을 그리는 유일 존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보며 마음 아파
인간 내면의 어두운 힘으로 인한 것

탐욕 · 성냄 · 어리석음이 어두운 힘
삼독심 해체는 개인의 깨달음 넘어
사회윤리적 차원서 폭넓게 접근해야

참여불교 화두인 '깨달음의 사회화'
모두에게 자비희사 정신 필요한 때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는 동물해방론을 주장한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저서 〈How Are We To Live〉의 국내 번역판 제목이다. 요즘 신문 지상과 TV 화면을 장식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 삶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지 가슴이 아프게 저린다. 불경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매우 많다.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고, 죽음을 예비하고, 내생을 그려보는 지구별의 유일한 존재이다.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통해 열반의 언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귀한 존재이고, 엄청난 행운의 존재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면 인간의 야만성에 새삼 놀라워진다.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증오의 세기: 20세기는 왜 피로 물들었는가〉에서 세계 1 ·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을 다루면서 악, 증오, 살인, 성폭력, 대량학살, 인종 청소 등 전쟁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인간 내면에 꿈틀대고 있는 '어두운 힘들(dark forces)'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어두운 힘이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이다. 이러한 삼독의 마음은 타자에 대한 공격성의 원천이다. 공격성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 자아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욕망 때문에 촉발된다. 이 자아에 대한 강력한 집착과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내 소유물, 내 나라, 내 인종과 같은 생각들은 이방인 또는 타인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경계심을 만들어 낸다. 붓다 가르침의 목표는 이러한 자아의 집착 그리고 자아와 함께 갈등을 일으키는 두려움과 갈등을 해체하는 것이다.

붓다 자신도 삼독심의 파고에 샤카족이 멸망하는 비운을 겪는다. 붓다는 코살라국의 위두다바 왕자가 샤카족을 멸족시키기 위해 행군하는 길목에 서서 세 번이나 일종의 1인 시위를 하면서 설득하였으나 멸족을 피하지 못하였다. 샤카족의 멸망을 들은 붓다는 머리에서 김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이러한 고통이 문명화되었다는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니 이를 어이하랴.

탐진치(貪瞋痴) 삼독심의 해체는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수행으로 간주되어 왔고 동시에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삼독심의 해체는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 못지않게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진치 삼독심은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사회적 관습에 이르기까지 침투해 있다. 따라서 탐진치의 해체는 공동체가 짓는 공업(共業)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참여 불교의 화두인 '깨달음의 사회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삼독심의 해체는 바로 사무량심(四無量心)에서 출발한다. 사무량심은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체계로서 자(慈), 비(悲), 희(喜), 사(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량심은 후에 불교의 대표적인 덕목인 자비로 자리 잡는다. 자비는 친절, 공감, 관대함, 수용 그리고 용기와 인내와 평정이라는 실들이 골고루 사용되어 짜여진 옷감이다. 자비 없는 인간 삶은 비극이다. 따라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잡보장경〉에 두 날개에 적시는 물로 큰 산불을 끌려는 앵무새의 이야기가 가슴에 다가온다.

"제 마음은 매우 넓으므로 부지런히 힘쓰면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몸이 불을 끄지 못하면, 다음 생의 몸을 받아 맹세코 불을 끄고야 말 것입니다."

제석천왕이 그 뜻에 감동하여 큰비를 내렸고, 불은 꺼졌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④ 칼의 노래

전쟁과 승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승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김훈 작가는 〈칼의 노래〉에서 일본 승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했다. 가령,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적들은 불법의 신통력이 전투를 인도해 주기를 기원했다. 임진년 개전 이후, 깨뜨린 적선 내부를 수색해 보면 적장의 선실 안에서는 〈법화경〉이나 〈연화경〉 책이 발견되기도 했다.(…)

선실 안에 불단을 차려놓고, 승려를 배에 태우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나의 부하들은 흔히 생포된 적의 승려를 배에서 목 베어 바다에 던졌다. 승려는 합장한 자세로 염불을 외면서 칼을 받았다. 염불을 외던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포로까지 먹일 만한 군량이 나에게는 없었다. 내 장졸들은 〈나무묘법연화경〉의 깃발을 찢어서 부상자들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올이 촘촘한 그 비단 깃폭은 상처를 싸매기에 좋았다. 헐벗은 내 장졸들은 그 비단 깃폭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노 젓는 그들의 등판에 법(法)자나 경(經)자의 획이 드러나 있었다."

위 내용은 픽션, 즉, 작가가 상상력으로 창조한 것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최근 월간 〈불광〉에서 발표된 '왜군과 함께 온 일본 스님들'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승의 역할이 명확히 명기돼 있다.

텐케이라는 승려는 "전란 중 타국살이였지만 매일 술에 취해 여흥을 즐기는 등 제법 윤택한 생활을 했다"는 글을 남겼다. 고상한 한시로 포장돼 있지만, 그 내용은 '국화를 보니 술 생각이 나고, 죽기 전에 술이나 먹자'는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적극 지지하는 승려도 있었다. 일본 종군승 슈쿠로는 〈도덕경〉의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우리 군은 개선해 군영으로 돌아와서 베어온 귀를 요시카와 경의 앞에 늘어놓았다. 경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다친 호랑이를 남겨두는 꼴이다. 노약자, 부녀자를 가리지 말고 한꺼번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골이 나뒹구는 전쟁터에서 일본의 종군승들이 제대로 본분(本分)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자국의 승리를 위해 민간인 학살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절명시(絶命詩)를 읊조리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둘러싸인 이순신 장군의 눈에는 그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만이 아군이었고,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승병장들은 헐벗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파계를 무릅쓰고 무기를 들었다. 일본 승려가 외는 경전 구절과 조선 승병장이 외는 경전 구절이 다를 수는 없다. 민족주의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파시즘의 논리도 되지만, 침략을 막는 저항의 논리도 된다.

어쩌면 일본 승려와 조선 승병장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전리품에 목마른 침략자를 위해 기도하느냐, 아니면 주린 배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느냐. 〈소설가〉

社 說

조계종 여성불자회에 거는 기대

처음으로 조계종 여성신도들로 구성된 단체가 출범한다고 한다. 바로 (가칭)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다. 전국교구본말사를 주축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여성불자들과 포교활동가들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발기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여성불자들만 1000명이 넘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여성신도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포교 · 신행 또한 자연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종단적인 지원도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은 법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중승대 총장, 동국대 총장, 역대 교육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교구본사 주지,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종회의원,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사찰 주지가 지도법사단으로 활동한다.

그야말로 조계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여성불자들이 활개를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겠다"는 설립추진위원장 범해 스님의 약속 또한 이 같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랜 세월 여성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이 돼왔다. 사찰 운영부터 지역 봉사활동과 기도신행모임 등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면서 사찰을 중심으로 봉사와 보시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조계종 여성불자회 출범을 계기로 이같은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 전반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만들어 갈 변화를 기대한다.

광주역사둘레길, 종교편향 오명 벗을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가톨릭 순례길 조성으로 종교편향 논란에 직면했던 경기도 광주시가 사업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광주역사둘레길'을 통한 화합을 도모한다는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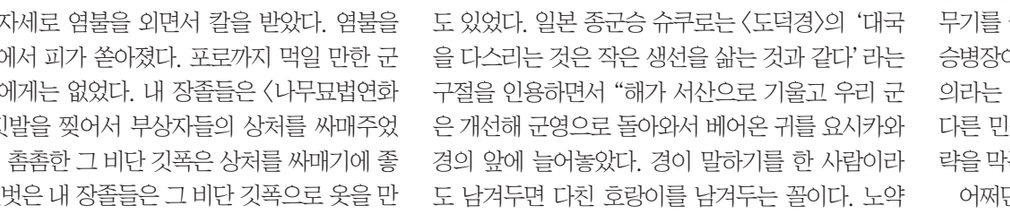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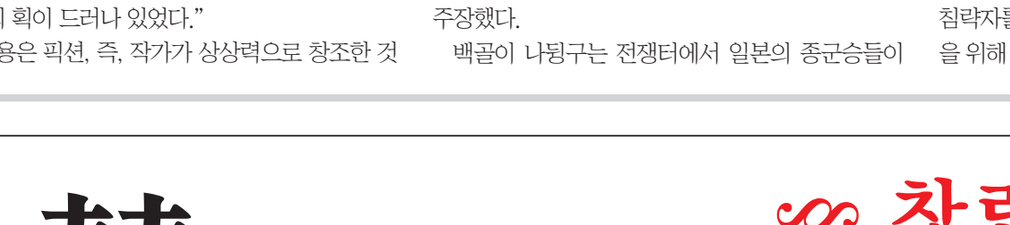
조계종과 광주시는 최근 광주역사둘레길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역사둘레길은 남한산성, 천진암, 신익희 생가, 허난설헌 묘, 나눔의 집, 조선백자 도요지, 화담숲,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등 광주 곳곳에 흩어져있는 종교 · 역사 · 문화 · 생태자원을 묶어 하나의 길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된다. 기존 광주시가 추진했던 순례길이 사실상 가톨릭 성지 중심으로 편중돼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광주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남한산성 내 폐사된 8개 사찰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도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협약식에서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포함한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에 대해 재차 사과한데 이어, "광주역사둘레길이 불자와 국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광주시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눔의집을 비롯해 천진암과 남한산성 등 불교계 원력과 역사가 담긴 공간까지 포함시키면서 불교계 공분을 샀다.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변경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사례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경각심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이 종교편향 오명을 벗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의 상징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輦(연)
∞ 창립 40주년 ∞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3단 조립식
*몸체길이 가로 650x세로 1100
*가볍습니다. 20kg

닷집번

반야용선
규격 : 높이 1300 x 길이 1600
감사행사 (번)幡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신(퇴색 및 훼손)된 번 교환시 20% 할인금액으로 새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월 30일 까지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